

기

I 한국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획

특

기업인 기술경시풍조 불식돼야 기술자의 책임과 양심회복 절실

집



李光魯
〈서울대 명예교수〉

건축은 그 시대 사회의 인쇄기

설마가 사람 잡는다. 건축의 기원은 인간의 생명을 외부로부터 닥치는 위협과 자연 환경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건축가나 건설업자와 일반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대충대충하는 적당주의와 괜챦아의 나사풀린 정신자세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원인이 된다는 예를 수 없이 보게 된다. 이때 우리 건축인들은 자기의 기술과 행동에 자신있게 책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자성한다.

건축은 그 시대 사회의 인쇄기이다. 그런 까닭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건축을 창작하는 우리나

라 건축가들은 이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가이자 문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건축물의 창작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은 본래가 단순히 예술품으로서 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기술과의 결합체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건축은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구조적인 안전성과 경제성 및 생산성의 합리화를 더욱 더 중요시하게 되어서 건축은 타 공업분야와 같이 공업생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 건축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서 있는가. 기업주들의 몰지각하고 기술경시의 횡포로 인하여 설계비, 감리비 등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외국 설계자들에게는 막대한

설계비를 주어 기본계획안을 받아다 국내 설계자에게 건축허가 도서를 작성케 하는데 그나마도 경쟁을 시켜서 형편없이 싸게 건축 본설계와 건축허가를 맞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서 서로 약삭빠르게 덤핑을 해서 설계비를 제값도 못 받고 맡아서 하다보니 건축설계의 부실을 가져오게 되고 사회의 지탄은 아랑곳 없이 설계비 덤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축가가 예술가이자 그 시대 문화의 대변인이라는 자부심마저 잊어버리고 건축설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최근 흔히 있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꼼빠 (COMPETITION DESIGN)에 무보수로 많은 건축설계 사무소가 참가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니 이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나라 건축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겠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국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인 즉 국내 건축가들에겐 설계비를 무자비하게 낮게 주면서도 우리나라 건축가들에게 의뢰하면 설계의 질을 보장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만일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서로 싸우고 설계비 덤핑이나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받을 것도 못 챙기고 건축설계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면 크나큰 불행이 닥쳐 오리라고 본다.

설계·시공·감리 조화이뤄야

건축물이 지어지기 위하여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즉 어떠한 건축을 짓고자 할 때 그 건축주 되는 사람이나 기업주는 자기가 어떠한 건

축을 지어야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까닭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과 대지가 확보되고 자금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건축주는 설계를 위한 건축가를 찾게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간에 건축설계자를 정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 건축설계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하여 독자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것에 대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서 설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설계라 함은 건축디자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구조계산과 구조상세도, 건축상세도 및 전기·기계·소방 등의 설비 설계도가 완벽해야만 건축설계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축설계가 실제로 건립되기 위하여는 공사 시방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세밀한 공사비 내역서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말하는 건축설계도서라는 것은 건축설계도 전부와 공사시방서·공사비내역서를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설계도서 일절을 납품함으로써 건축설계가 끝났다고 한다.

다음에 이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사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설계도서가 기본이 되어 시공업자는 공사를 하여서 그 건축물은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계자와 시공업자와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감리자가 있어서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과 보안을 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감독

을 하는 것으로 건축공사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직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리의 직분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왕왕 일어나게 되는데 즉 영어로 인스펙션(Inspection)과 슈퍼비전(Supervision)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있을 수 있는 혼동이라고 본다. 인스펙션에 해당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법정 감리로서 공정별로 필요시 감리자가 현장에 나와서 설계도와 시공의 성과에 대해서 체크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고 행정관청에 공정보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감리란 슈퍼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리회사에서 일정한 유자격 기술자들을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시공업자와 함께 현장에서 협의하고 숏 드로잉(Shop drawing)도 작성케 하고 승인하고 각 공정마다 자재의 품질을 체크하고 공법의 승인 등 현장에서 각 공정마다 전문기술자가 감독해서 시공의 질을 높이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즉 우수한 건축물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건축설계가 우수하고 완벽해야겠고 시공업자는 이 설계도서에 충실하게 시공토록 하는데 감리자와 함께 성심껏 설계도서에 의하여서 우수한 시공을 완공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되는 것인바 언제나 건축설계와 시공·감리의 3자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오로지 목적하는 프로젝트의 훌륭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협조를 앓는다면 즉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수한 건축물은 준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단

순한 원칙인 설계·시공·감리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니 그 이유를 보면 그것은 우리 건축계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너무나도 고질적인 사회의 폐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건축설계비를 상식 이하의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비도 시세보다도 깎고 깎아서 시공을 시키니 값싼 저질공사를 하게 되고 감리자 역시 형식적인 대접을 하는 기술경시 풍조 속에서 건축을 하게 되니 건축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설계자나 시공업자 그리고 감리자는 서로가 책임을 떠 넘기기에 바쁘니 값싼 설계비를 받고 설계를 하는 건축가나 값싼 공사비를 받고 저질공사를 일삼는 시공업자, 또 값싼 감리비로 무책임하게 감리를 하는 감리기술자 등 이제는 정신차리고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제 값 받고 맡은바 일에 충실하도록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부실건축, 건설비 차이서 비롯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문제점은 부실건축물로서 이것들은 막대한 재원을 들였는데도 파괴될 우려가 있고 이것은 곧 인명에 큰 피해를 준다는데서 심각성이 더 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흔히 말하길 중동지방이나 동남아 지방에서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은 세계에서 으뜸간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국내의 건축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많은가? 똑같은 건설회사가 시공하는데도 이렇게 건축생산물에 국내 외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역시 건설공사비의 차이에 있다고 한다.

즉 국내건설공사와 해외건설공사를 비교할 때 동일한 질의 건축을 하는데 있어 그 공사비 단가가 국내에선 국외의 절반도 안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 및 공공 공사에 있어서 재경원에서 책정한 공사비 단가가 너무나도 시중가 보다 낮고 건축물은 학교·주거용 건물·체육관·박물관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인데도 정부의 공사비 단가는 일률적으로 책정되어서 집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에 의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다면 감사에 걸려서 관계관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으니 건축공사의 종류가 다르고 제아무리 훌륭한 설계라도 정부 책정 공사비 단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최저금액 낙찰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공사금액은 최저가가 아니면 낙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턴 키팅식에 있어서도 제아무리 좋은 기술개발을 하여도 가격에 있어서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으면 낙찰이 안되는 것이니 새로운 기술개발도 단가가 싸지 않으면 실용이 안되게 되어 있다.

국·공립기관이 이러하니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한수 더 떠서 경쟁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을 써서 값싼 공사비로 건축을 하게 되니 시공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값싸게 낙찰한 건설공사를 거기서 20~30% 깎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그들은 또 하도급을 주니 실지로 공사 현장에서 집행되는 실행 공사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싸구려 공사비가 배당되고 거기가 지불은 어음으로 몇달씩 밀려서 주니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고 기능공도 숙련공을 쓸 수가 없으니 공사가 엉망으로 되는

것이다.

이 기회에 건설 시공업자들은 크게 자성해서 서로가 무모하게 덤핑하지 말고 적정 가격으로 공사를 도급받고 하도급자에게도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게 적당한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기성고를 타면 즉시로 지불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도급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살아나갈 수 있게 하며 기능공들이 안심하고 자기기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匠人으로서의 자부심 살려야

옛 도공들은 자기가 보아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모두 깨버렸다고 한다. 그들은 철저한 장인정신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자기 마음에 안드는 것은 후세에 남기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예능과 스포츠·기타 전문 분야에서 '프로'나 '아마'냐를 따지는 것을 흔히 보는데 거기서 '프로'가 된다면 그 분야에서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크나큰 긍지를 갖고 열심히 자기의 '프로'의 기예를 닦고 그것을 후진에게 전수까지 하는 것을 볼 때 고래로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목수·석공·미장·도장공 등에서 많은 장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야 말로 오늘날의 '프로'와 같은 것이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건축에 관계되는 건축설계거나 공사감리자, 현장의 시공기술자들 등은 요사이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술경시 풍조 속에서 여기에 굴하지 말고 진실한 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세를 잊지 말고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능공은 자기의 기능을 닦아

서 말은바 전문분야에서 적정 임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적정대우를 받으면서 자기 분야를 성실히 장인정신을 살려서 책임지고 부실시공의 오명을 벗도록 하여야겠다.

건축설계자들은 약삭빠른 설계비 덤핑을 이제 그만두고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적정 설계비를 받도록 하고 세심하고 성실히 빠진 것 없는 설계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공사 감리자는 건축설계와 시공과의 협조자로서 그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진실한 장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정당한 감리비를 받도록 하고 형식적이지 아니라 실질적인 감리를 하도록 해야겠다.

이제 우리들은 옛 조상들이 갖고 있던 장인정신을 살려서 자기의 기술과 기능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 경시 풍조도 사라지고 우리들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질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장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건축이 완성되면 국공립 기관은 물론 일반사회의 풍조가 그것에 대한 보수 관리비의 책정이 없고 그 건물의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사용자가 제멋대로 구조변경 등을 하는 예가 많고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시공한 건물에 대하여서는 몇년이 지나도 수시로 돌아봐서 그 건물의 유지관리에 협조하는 장인정신의 발로가 필요하다고 본다. ㉮